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긴축 곧 시작..中 정책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
- ◇ (분석)-유가 랠리 올해도 지속 전망..수요 우위 - 애널리스트들
- ◇ (단독)-BOJ, 금리 인상 메시지 전달 관련 논의중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된 가운데 어린이들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로이터/카를로스 오소리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187.3	1.2%	0.1%	-8.6%	유로	1.1416	0.5%	0.4%	-6.9%
100엔 대비	1,042.1	-0.5%	-0.9%	+1.8%	엔	114.22	1.2%	0.8%	-10.3%
유로 대비	1,358.7	0.1%	-0.5%	-1.9%	위안	6.3531	0.4%	0.0%	+2.7%
위안 대비	187.35	0.2%	-0.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5,911.81	-0.9%	-1.2%	+18.7%
코스피	2,921.92	-1.1%	-1.9%	+3.6%	나스닥	14,893.75	-0.3%	-4.8%	+21.4%
코스닥	971.39	-2.4%	-6.1%	+6.8%	S&P500	4,662.85	-0.3%	-2.2%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638.63	2.0%	1.4%	-4.9%
국고채 3Y	2.044%	2.9bp	24.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239%	-1.6bp	22.8bp	+67.6bp	미국채 2Y	0.970%	10.0bp	24.0bp	+61.0bp
국고채 10Y	2.453%	-0.5bp	20.3bp	+53.7bp	미국채 10Y	1.790%	3.0bp	2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4.27	6.8%	11.7%	+55.8%	한국 5Y	23.5bp	-0.2bp	1.4bp	-0.7bp
금(현물)	1,817.55	1.2%	-0.6%	-3.6%	일본 5Y	17.6bp	0.1bp	0.0bp	+2.1bp
TR상품지수	3,263.10	-1.3%	-2.3%	+24.6%	중국 5Y	43.6bp	0.0bp	2.4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17일(월)>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2021년 4분기 동향 및 2022년 1분기 전망)(12:00)

<18일(화)>

- 산업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11:00)
- 한은,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분석(BOK 이슈노트)(12:00)

<19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금융위,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20일(목)>

- 한은,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기재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 한은, 2021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한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BOK 이슈노트)(12:00)

<21일(금)>

- 관세청, 1월 1-20일 수출입 동향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17일(월)>

- 일본 11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12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 산업생산 · 소매판매 (11:00)
- 중국 4분기 GDP (11:00)
- 미국 휴장

<18일(화)>

- BOJ 금리 발표
- 일본 11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서비스업 경기전망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1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9일(수)>

- 유로존 11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건축허가 · 주택착공 (22:30)

<2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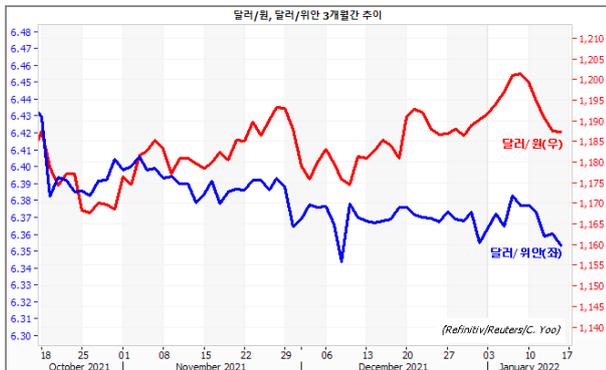
- 일본 12월 수출입 (08:50)
- 중국 1월 대출우대금리 (1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30)
- 미국 12월 기존주택 판매 (자정)

<21일(금)>

- 일본 12월 CPI (08:30)
- BOJ, 12월 16-17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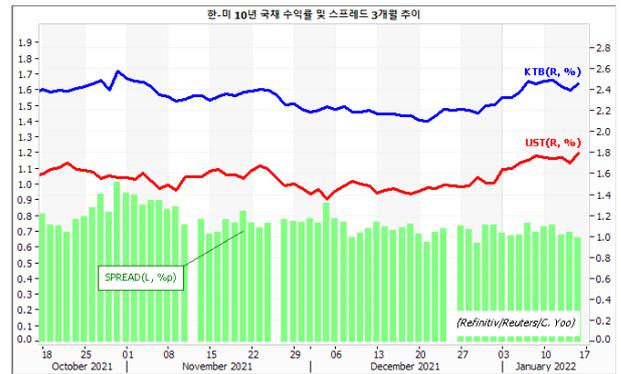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일시적인 수급 변수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197 원이다.
- 미국 긴축 기조에 대한 시장 내성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은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 움직임을 면밀히 좇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겪지 않은 기술주 중심의 주가 움직임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 다만 오미크론 진정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막아주고, 반도체 업황 낙관론이 국내 증시를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 등은 원화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 특히 이번 주는 신기록을 세운 LG 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에 따른 외국인 환전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원은 일시적으로 레인지 하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 한편 이번 주 주목되는 대외 지표로는 주초 중국 4분기 GDP, 12월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 판매 등이 있다.
- 국내는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잠정치)에서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와 그 규모를 살펴 봐야 하겠다. 지난 10일까지 무역수지는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매파 색이 강했던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1월 금통위 회의를 전후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기점으로 큰 되돌림이 펼쳐졌다.
- 이 총재와 금통위는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 이런 분위기다 보니 시장에선 당장 5월 인상론이 회자된다. 금통위가 분기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다만 3월 한은 총재에 이어 5월엔 매파 임지원 금통위원의 교체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달라질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다.
- 신임 한은 총재와 신임 금통위원 교체로 빚어진 공백이 통화정책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 추가경정예산 파장도 지속된다. 정부는 이번 주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될 추경안 작업이 채권시장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은 20일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1월 생산자물가 상승 폭은 2008년 10월 13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분간 물가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분석)-美 긴축 곧 시작..中 정책완화 어디까지 가능할까?

베이징, 1월 13일 (로이터) - 중국인민은행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나,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투입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책 관계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이 더욱 냉각될 경우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곧 통화 정책 긴축을 시작하리라는 전망이 강화된 가운데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질 것이다.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투자가 압박받고 엄격한 코로나 19 조치로 소비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추가 경제 부양을 약속해 왔다.

중국인민은행 고문을 지낸 위용딩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완만한 정도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내부 관계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인민은행이 향후 몇 달 안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고, 재대출 제도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여신 확대 등 다른 정책 도구를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기업들을 위한 추가 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2월 15일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두 번째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했으며, 이후 20일에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5bp 낮춘 바 있다.

지신인베스트먼트의 리안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에도 지급준비율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인하되리라 내다봤으며, 쉬훙차이 중국정책과학연구원 부디렉터는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역명을 요구한 한 정책 당국 내부 관계자는 "경제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확실히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타오 왕 UBS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이나 4월에 지급준비율이 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LPR은 동결될 것으로 본다고 11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재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실질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LPR 인하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다봤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이 그간 중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중국과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돼, 중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고 위안이 절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견실한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 통제로 인해 중국이 터키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출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위 전 중국인민은행 고문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의 통화 정책에 일부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정책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다시 말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정책을 완화하려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경제 문제인 동시에 정치 문제

작년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및 부채 리스크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됐지만, 이들은 올해 주요 당대회를 앞두고 급격한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원슈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주 관영 아웃룩위클리 기고문에서 "모든 지역과 부처는 경제 안정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데, 이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담당자는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경제) 위축 효과가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책 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최소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목표를 하고 있다.

중국을 올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과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쿼터도 대체로 2021 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정책 결정권자들은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거품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분석)-유가 랠리 올해도 지속 전망..수요 우위 - 애널리스트들

런던, 1 월 13 일 (로이터) - 작년 50% 올랐던 유가가 올해도 랠리를 이어가리라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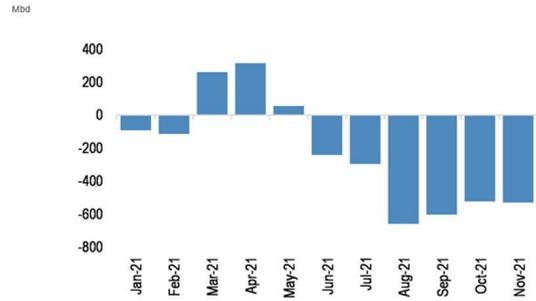
그들은 생산능력 부족과 한정적인 투자로 유가가 배럴당 90 달러, 어쩌면 배럴당 100 달러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국가들이 2020 년과 같은 강력한 외출제한 조치를 망설일 것으로 내다봤다.

제프리 할리 오안다(OANDA) 선임 애널리스트는 "주요 산유국들(OPEC+)의 증산 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국 경제가 급격한 둔화를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1 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PEC+는 올해도 점진적인 증산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확산 경계감 속에 증산을 경계하고 있고, 일부 소규모 생산국들은 공급을 늘릴 여력이 없다.

Exhibit 5: OPEC+ over/underperformance vs production quotas



Source: OPEC, Platts, various source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모간스탠리는 올해 3 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올해 하반기 재고 급감 전망과 잉여 생산능력 부족, 에너지 업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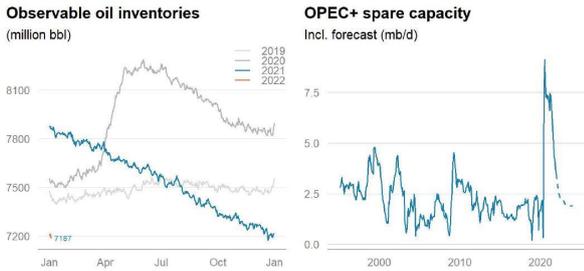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블룸버그뉴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올해 생산 능력 추정치를 각각 일일 80 만배럴, 120 만배럴 하향조정된 이후 JP 모간 애널리스트들은 12 일(현지시간) 노트에서 유가가 최대 배럴당 30 달러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JP 모간은 유가가 올해 배럴당 125 달러, 내년 150 달러로 '오버슈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오 갈림베르티 리스타드에너지 선임 애널리스트는 만약 OPEC 이 계속해서 시장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림베르티 애널리스트는 올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90 달러를 넘을 수는 있어도,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가이아나 등이 생산을 늘리면 유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urce: IEA, EIA/DOE, PJK, IE, PAJ, Platts, Kpler, BP Statistical Review, IHS, Rystad Energy, Morgan Stanley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기존보다 8 달러 높은 평균 75 달러, 내년 전망치는 17 달러 상향 조정한 평균 77 달러로 제시했다.

작년 12월 말 실시된 로이터 조사에서 응답자 35명은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평균 73.57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11월 전망치 75.33 달러보다 약 2% 낮아진 수준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2014년 이후 단 한번도 90 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다.

(단독)-BOJ, 금리 인상 메시지 전달 관련 논의중

도쿄, 1월 14일 (로이터) - 일본은행(BOJ) 관리들은 금리는 결국 인상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에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통한 한 소식통은 "BOJ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을 때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이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해서 상회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두 소식통 역시 이같은 생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 금리 인상은 임박하지 않고 최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초완화적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내수 증가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소비가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BOJ 관리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정당화될 여건이 마련되리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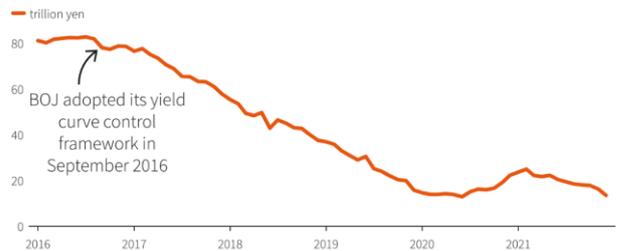
이는 실제 금리 인상이 2023년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의 꾸준한 금리 인상 계획, 엔 약세, 생활비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BOJ로 하여금 향후 출구 계획을 짜는데 더 대담해지게 만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모처럼 물가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아닌 상방 리스크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BOJ has steadily 'stealth' tapered its JGB buying

Chart shows sharply slowing pace of BOJ's JGB buying



Source: Bank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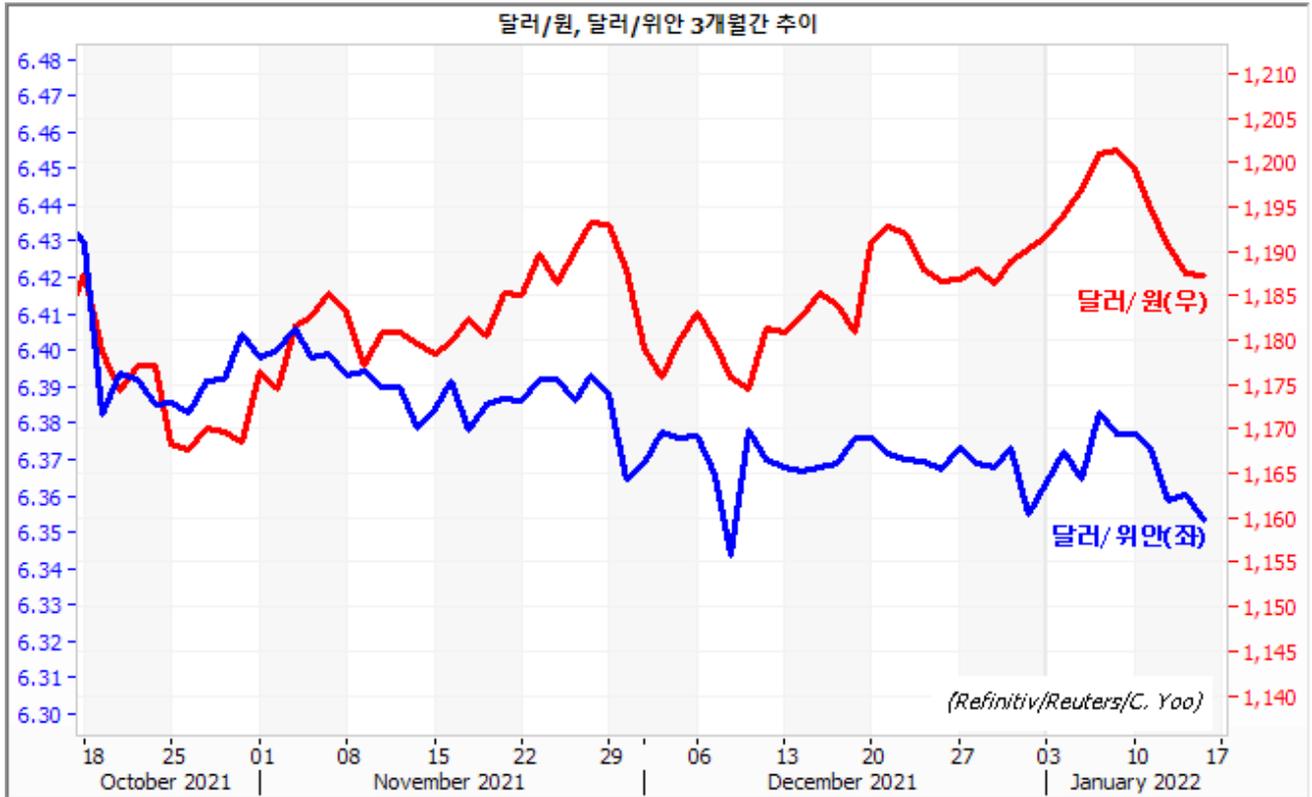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다음 단계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BOJ는 금리를 "현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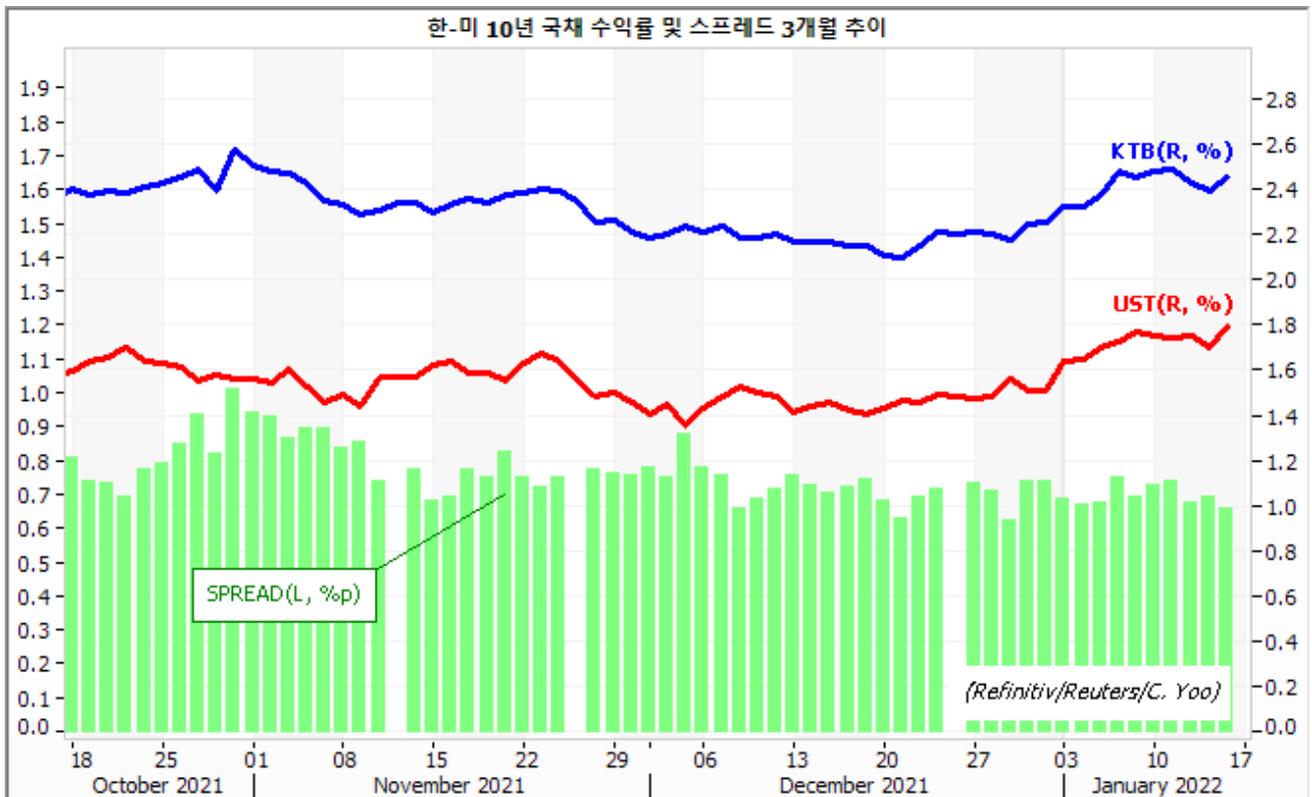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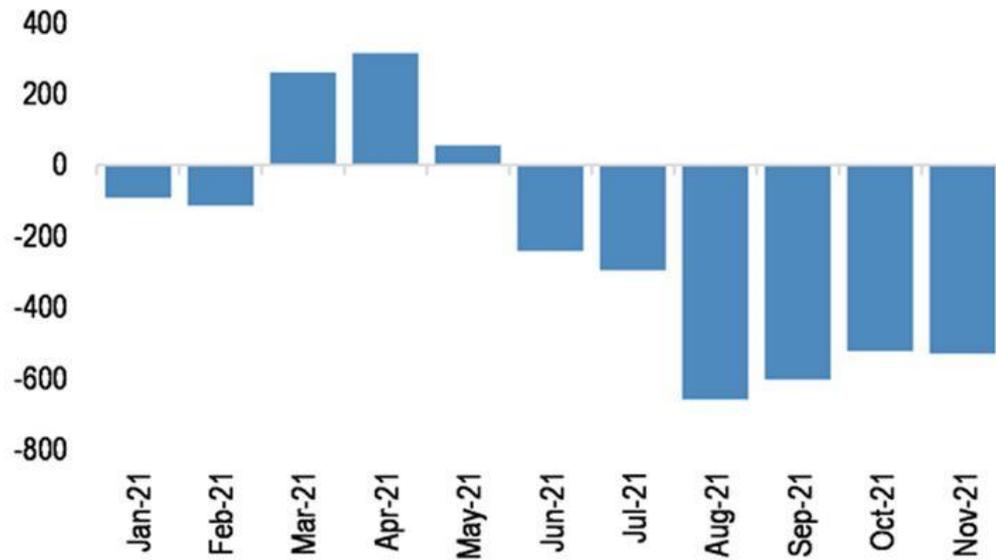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xhibit 5: OPEC+ over/underperformance vs production quotas

M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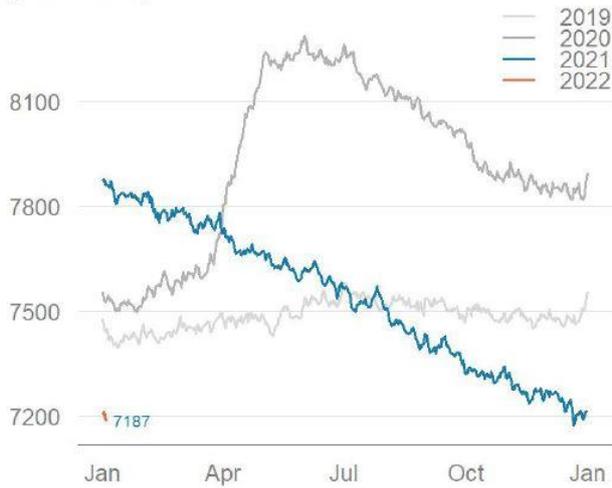


Source: OPEC, Platts, various source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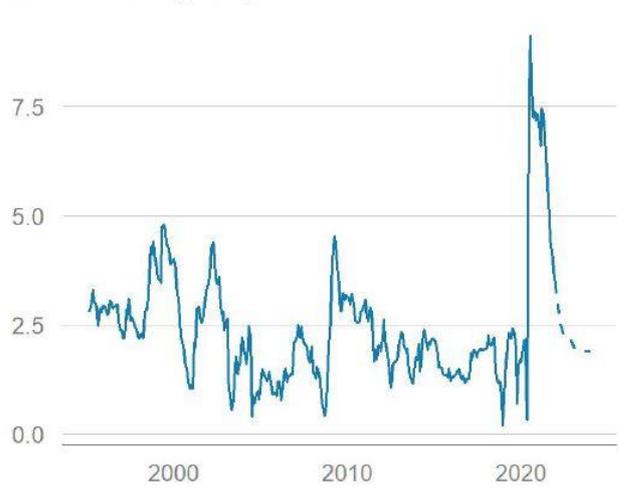
Observable oil inventories

(million bbl)



OPEC+ spare capacity

Incl. forecast (m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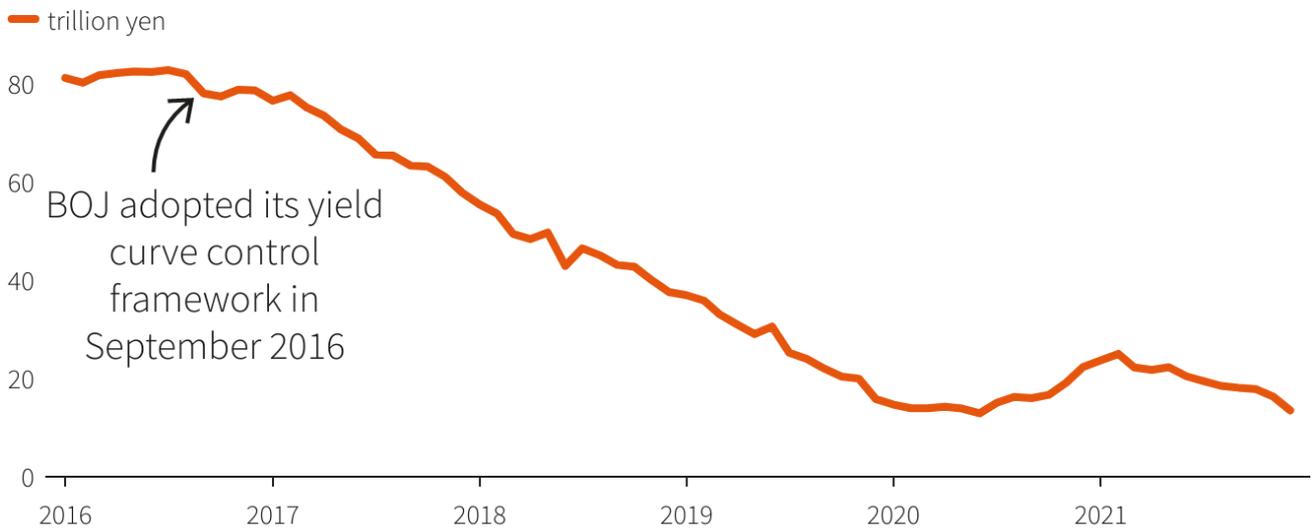


Source: IEA, EIA/DOE, PJK, IE, PAJ, Platts, Kpler, BP Statistical Review, IHS, Rystad Energy, Morgan Stanley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OJ has steadily 'stealth' tapered its JGB buying

Chart shows sharply slowing pace of BOJ's JGB buying



Source: Bank of Japa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